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41 (2021. 06. 09.수)

해마다 방국은 물난리로 몸살을 겪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간 강우량이 너무 많아 그것에 맞춰 도로 및 배수 시설 공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보란 듯이 잠겨버리니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모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도 1년을 훌쩍 넘겼는데 이곳은 여전히 끝이 예측되지 않습니다. 인도 접경 지역의 지역 봉쇄조치와 1년을 넘는 휴교령, lock down같지 않은 lock down 등이 반복되고 백신수급 조차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시노팜도 아닌 시노백을 들여오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곳도 사람사는 곳인데 나아지겠지요...

이번 소식은 많이 늦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일이 한꺼번에 몰려 일어났습니다.



꽤 높은 보도블럭까지 차오른 빗물
- 우리집 바로 앞

아가페 현 상황

1.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 2021년 6월 1일(화)부터 홈을 열어 홈에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홈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빠엘만 등하교를 합니다.

올해가 역대 최고 더위라고 말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고

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붕이 양철이고 심지어 벽도 양철인 집들이 많아 열이 식지 않는데다

창이 제대로 없어 빠엘의 집은 낮에도 깜깜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빠엘만 등하교를 시킵니다.

그래도 학교는 벽돌 집이라 양철 집보다 훨씬 시원하거든요.



심심한토요일 오후 망고파티



저의 일편단심 메헤라즈와... ㅎ



아침 예배 시작 직전...



만들기 시간 - 누구게요? 1.빠엘 2.메헤라즈 3.파힘 4.압둘 5.샤밌



리따 선생님 혼자~~~ 우리 단청~~~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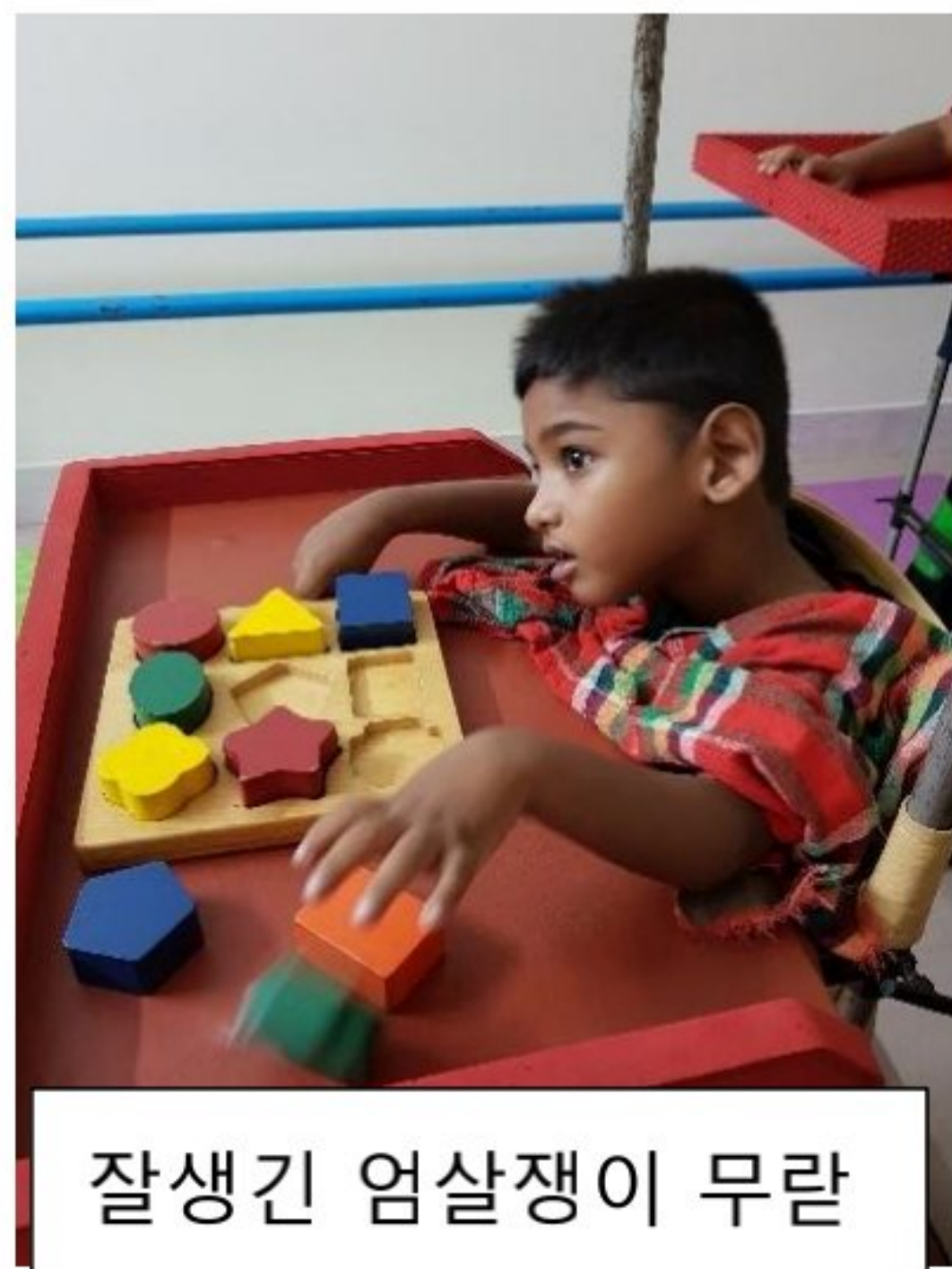


아가페 범생 메헤라즈



장난꾸러기 압둘

2. 아가페 널서리도 이전과 같이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잘생긴 엄살쟁이 무란



새로 맞춘 보족기를 신고...

3. 홍두석 사기사님(방국 교회 및 장애아동 사역)이 후원을 해 주셔서 널서리 아이들 중 리싸, 무란, 하비바에게 특수 휠체어와 보족기, 스탠드프레임 3세트씩을 맞춰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4. 또 학교와 홈이 이사를 합니다.

장소는 널서리가 들어간 건물 1층 2채를 추가렌트를 하고 2층 한 채를 더 얻어 널서리가 올라가고 밑에 3채는 두채를 터서 학교로 사용하고 밤에는 여자아이들과 남자 아이들 숙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해야 하고 각종 페인트 및 전기 공사를 6월 15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라킵의 전 가족을 아가페 옆으로 이사시켰습니다.(길고도 긴 이야기..)

- 1) 한 5년 전 한국 사기사님의 학교에 장애 동생(라킵)을 돌보느라 학교에 못오는 여학생이 있다며 라킵을 우리가 돌봐주면 여학생이 학교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 2) 당시 라킵은 뇌병변과 시각장애, 삼킴장애 등과 함께 수두까지 앓고 있어 거의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 3) 삼키지 못하니 밥을 못먹고 인슈어(Ensure)라는 환자용 영양분유를 젓병에 먹였고 지금은 다행히 수저로 떠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많이 잘 커서 설 수 있다면 제 허리까지 올 정도입니다.
- 4)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옛날 우리 약장수같은 일을 하던 라킵 엄마는 일자리를 잃었고 1년을 빚으로 살았습니다. 한달에 1만 7천원 월세도 못내 1년을 밀렸고 가게에서 외상으로 갖다 먹은 식료품 외상값이 우리돈 3만원 정도.. 그것조차 갚을 수 없는 것이지요.
- 5) 저희도 라킵을 돌보던 할머니가 쇠약해 지셔서 더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찾다가 결국 못찾고 그 엄마가 저희 아가페 쪽으로 이사 오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 6) 그런데 약장수를 하는 그룹들이 모여사는 지역에서 그 가족을 빼 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정리하는데 엄청 신경이 소진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라킵 엄마가 성매매로 악용되는 사이트에 자기 소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7) 이 과정에서 주변 한국인 사기사님들은 모두가 그 가족을 아가페 쪽으로 이사 시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드시 뒷 탈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 8) 그리고 저는 사람을 믿고 돕는 댓가로 배신과 상처 받을 각오를 해야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위염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 가슴에서 올라오고 화도 나고... 이 결정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주님은 하락을 하시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받을 배신감을 생각하니 심장이 쿵 떨어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 9) 결국은 6월 6일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고 7일에 엄마와 최종 결론을 짓고 8일에 모든 부채를 청산해 주고 그 날로 짐을 실어 나왔습니다.
- 10) 이사한 집은 월세가 시골집의 두배인데 월세를 내주고, 라킵 엄마는 우리 학교의 청소를 시키고 월급을 주고 널서리에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 11) 그 동영상을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찍었다고... 형식은 돈을 모금하는 내용이지만 성매매로 악용되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상태... 화도 나고 어처구니도 없고 가난이 원망도 되고 끝을 알 수 없는 무지의 비참함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멍멍합니다.
- 12)그래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 주신 돈으로 하는 것이니 주님이 책임 지시겠지. 더이상 내 의를 버리자. 배신할 수도 있겠지.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받아야 하는 것 맞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13) 어제 아침 묵상 가운데 우리 라킵이 그 집안의 복의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하려고 애굽에 먼저 보내신 요셉과 같이 요셉으로 인하여 기근에서 벗어나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라킵 엄마가 예뻐서가 아니라 라킵으로 인해 그 가정이 가난과 죄의 질곡에서 건짐을 받는거구나. 볼 수도, 앓을 수도 없는 우리 장애 아이를 통해 그 가족을 구하신 것입니다.
- 14)저역시 죄의 질곡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듯이 그 가정도 아무 잘한 것 없는데 우리 라킵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질곡을 끊게 하셨구나.
- 15)라킵엄마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지만 라킵으로 인해 그 죄를 덮듯이 주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를 덮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 16) 라킵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고 월세 5만원 정도의 방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또 쌀과 기름, 감자 등 한 달 식량을 채워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신실하신 과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딱 버려도 말 못할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셨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 부터 이미...
- 17)이제 라킵 누나 사만나를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 라자를 더이상 돌볼 수 없어 다른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봉쇄 기간 중 CRP(재활 시설)에 있던 라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돌 볼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다른 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처음에 CRP에서 아가페에 의뢰를 해와서 지금까지 돌봐 왔는데 손뚜스 할아버지도 이제 많이 연로하시어 더이상 돌 볼 수 없고 새 사람을 찾아달라고 CRP에 의뢰했는데 찾을 수 없어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쪽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돌보지 못한 죄책감... 라자한테 미안함...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은 제 몫으로 남습니다. π-π.

7. 새로운 매니저를 구했습니다.

튼뚜라는 청년이고 대학원 졸업한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한국 사 ㄱ 사 님 고아원에서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박 사 ㄱ 사가 키운 청년입니다. 워낙 일이 많은데 잘 적응하길 원합니다.

지금 홈매니저를 맡고 있는 손뚜스 할아버지는 내년 2월이면 10년 근속을 채우고 은퇴합니다. 이나라 정년이 훨씬 넘은 70이 되십니다. 내년 2월까지 근무하실 예정이어서 새 매니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

축농증과 신경성 위염으로 계속 구토 증세가 있어서 괴로워하기를 일주일 넘었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매매는 드러나는 죄니까 크고 마음으로 짓는 죄, 미워하는 죄, 주님께 뻔질뻔질 불순종하는 죄는 그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에서 나는 아직도 한 치도 못 나갔구나...

다시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고멜보다 바리새인이 나올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에, 집어들었던 돌맹이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점차 아가페 스쿨을 전면적으로 열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과 우리 스텝들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학교와 홈이 이사갈 터인데 각종 공사와 이사의 과정들 가운데 힘들지 않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라킵 가족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고통을 담담히 이겨내도록 마음이 단단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라킵 누나 사만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학업을 잘 수행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우리 라자가 훨씬 좋은 기관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새로운 매니저 뜯뚜가 자신의 신실함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기도의 동역자님들께도 기도 부탁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더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속 5:3-4)**

율법의 두루마리 아래 아무도 의인일 수 없는데 그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것처럼 자랑하며 남을 정죄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받을 만한 고난을 당할 때 엄살부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감사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꾸벅!